

# 중동전쟁 관련 항만 운영 긴급 점검 및 항만 연관 산업계 애로사항 청취

-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 및 업계 지원방안 등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작은 애로사항도 놓치지 않고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원활한 항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책임자	과장	김한울 (051-773-5750)
		담당자	사무관	김행숙 (051-773-5751)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책임자	과장	윤두한 (051-773-5770)
		담당자	사무관	강현희 (051-773-5773)